

*for 2020*

문 학 후 련

set 3

문제 - 정답

보쌈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문 열자 선뜻!  
먼 산이 이마에 차라.

우수절(雨水節)\* 들어  
바로 초하루 아침.

새삼스레 눈이 덮인 멧부리와  
서늘옅고 빛난 이마받이\*하다.

얼음 금가고 ㉠ 바람 새로 따르거니  
흰 옷고름 절로 향기로워라.

옹송거리고\* 살아난 양이  
아아 꿈 같기에 설워라.

미나리 파릇한 새순 돋고  
옴짓 아니 기던 고기 입이 오물거리리는,

꽃피기 전 철 아닌 눈에  
햇웃\* 벗고 도로 चु고 싶어라.

- 정지용, 「춘설(春雪)」-

- \* 우수절(雨水節) : 24절기의 하나. 입춘(立春)과 경칩 사이
- \* 이마받이 : 이마를 부딪치는 짓
- \* 옹송거리고 : 몸을 움츠러들리고
- \* 햇웃 : 숨을 두어 지은 웃

(나)

새는  
자기의 자취를 남기지 않는다.  
자기가 앉은 가지에  
자기가 남긴 체중이 잠시 흔들릴 뿐  
새는

자기가 앉은 자리에  
자기의 투영이 없다.  
새가 날아간 공기 속에도  
새의 동체가 통과한 기척이 없다.

과거가 없는 탓일까  
새는 냄새나는  
자기의 체취도 없다.  
울어도 눈물 한 방울 없고  
영영 빈 몸으로 빈털터리로 빈 몸뚱아리 하나로  
그러나 막강한 풍속을 거슬러 갈 줄 안다.  
생후(生後)의 거센 ㉡ 바람 속으로  
갈망하며 꿈꾸는 눈으로  
바람 속 내일의 숲을 꿰뚫어본다.

- 황지우, 「출가하는 새」-

(다)

매화는 요염이요 해당화는 신선이라  
지란은 춘향이요 지기를 만나온 듯  
㉢ 한죽(寒竹)은 주락하여\* 군자를 대하온 듯  
벽오동 젖은 잎에 머리 붉은 봉황이 깃들이고  
창창한 늙은 솔에 백학이 춤을 추고  
행화는 나뭇거리 술잔에 가득하고

접시꽃 담홍하여 날빛을 기울이고  
㉣ 버들은 실이 되고 피꼬리는 북\*이 되어  
연류간\* 왕래하여 흐르는 소리 이어지니  
흐르는 빛소리에 티끌 꿈 깨이거다.  
청려장 둘러 짚고 앞뒀에 올라가니  
잔디마다 속잎이요 포기마다 꽃이로다.  
꽃 꺾어 손에 들고 물 먹어 양치하니  
㉤ 청향이 입에 가득하고 화기가 옷에 묻는다.  
유수를 따라가서 바위 위에 앉았으니  
㉥ 공산이 적막한데 접동새 슬피 울고  
산화는 난만한데 벌나비 짹짹하다.  
청산을 흰 구름은 부용같이 피어가서  
선인을 찾아와서 곳곳이 따라오고  
현포\*의 맑은 안개 띠같이 둘러 있어  
㉦ 신선은 날만 여겨 곳곳이 쫓아온다.  
- 작자 미상, 「전원사시가(田園四時歌)」-

- \* 주락하여 : 마음이 상쾌하고 정신이 깨끗하여
- \* 북 : 베틀에서 날실 사이로 씨실을 푸는 기구
- \* 연류간(烟柳間) : 안개가 끼인 버드나무 사이
- \* 현포(玄圃) : 선경과 같이 좋은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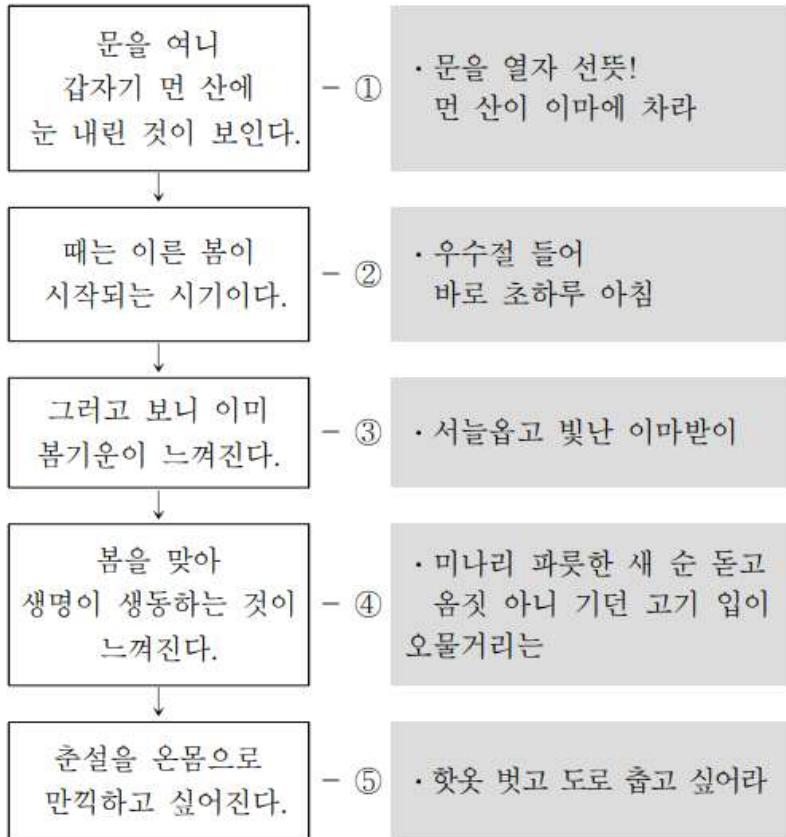
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유사한 통사구조를 반복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화하는 대상의 속성을 다양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④ (가)~(다)는 시선이 이동하는 순서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⑤ (가)~(다)는 선경후정의 방식을 사용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2. (가)와 (다)에 드러난 자연의 공통적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의 삶이 투영된 대상으로 회상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
- ② 화자에게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으로 작품 창작의 계기가 된다.
- ③ 화자가 본받으려고 하는 대상으로 화자에게 깨달음을 주는 역할을 한다.
- ④ 이상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곳으로 화자의 지향점을 집약적으로 제시한다.
- ⑤ 현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곳으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한다.

3. (가)의 내용 흐름을 다음과 같이 파악할 때, 근거가 되는 시어가 적절하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4. (나)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시행의 서술어에 주목했어. 부정적 의미의 서술어를 반복하여 새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
- ② 시상 전개 방식에 주목했어. 새의 외면을 응시하다가 새의 내면을 응시하며 마무리하고 있는 듯해.
- ③ 제목에 주목했어. 제목에 사용된 '출가'와 '새'는 이 시의 주제 의식과 시적 대상을 파악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거야.
- ④ 수사법에 주목했어. '자취'에서 시작하여 '체중'과 '자리', 그리고 '체취'로 시적 대상의 의미를 점층적으로 확대하는 것 같아.
- ⑤ 화자의 태도에 주목했어. 시적 화자는 대상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중시하는 가치를 새의 모습에 투영한다고 할 수 있어.

5.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대나무를 군자의 덕목을 지닌 존재로 비유하여 표현하였다.
- ② ㉡는 늘어진 버들가지 사이로 새가 나는 모습을 베를 짜는 모습으로 형상화하였다.
- ③ ㉢은 온몸으로 봄의 운치를 누리는 모습을 통해 대상과의 일체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은 산행을 다니면서 느끼는 흥겨운 심정을 감정 이입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 ⑤ ㉤는 자연을 즐기는 흥취를 자신이 신선이 된 것처럼 표현하여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6. ㉦과 ㉧을 비교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상승적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다.
- ② ㉦과 ㉧은 모두 엄숙한 작품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
- ③ ㉦은 일상적 의미, ㉧은 상징적 의미가 주로 드러난다.
- ④ ㉦은 화자와 대립되는 존재, ㉧은 화자와 동화된 존재이다.
- ⑤ ㉦은 심리적 갈등을 해소하는, ㉧은 심리적 갈등을 유발하는 기능을 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복실 : (부엌을 향하여) 어머니.  
 처 : (무언)  
 복실 : (조심스러이) 어머니.  
 처 : (㉦ 말없이 솥뚜껑을 열어보고 다시 바다만 바라본다.)  
 복실 : (하늘을 쳐다보고 혼잣말로) 날이 좀 갸라나? (다시 모(母)를 보고 좀 크게) 어머니.  
 처 : 이년아 숨넘어가지 않는다. 왜 귀찮게 자꾸 부르니 부르길. 오래잖아 닭 울 텐데 까라는 조개나 깔 것이지.  
 복실 : (통명한 모의 말에 어이가 없어) 아이 참 거 대답 좀 하시면 어떻수.  
 처 : 말하기도 귀찮아.  
 복실 : 너머 역정만 내지 마요. 아버지께서도 술만 잡숫고 밤낮으로 트집만 잡으시는데 어머니마저 그러시면.  
 처 : ㉧ 또 한 척 들어왔나 본데.  
 복실 : 아까 소나무 선창에 댔다가 물결이 세니까 이쪽으로 다시 대는 거 아녜요?  
 처 : 그 옆에 칠성기 단 배 말이다. 복실 : 나루 못 미쳐 판 돌네 배여요. 허-연 형겅으로 붉은 돛을 누덕누덕 긴 걸 보면 모르세요?  
 처 : (불평이 찬 말로) 너는 추녀 끝에 웅배기 좀 못 치겠니? 고 빗방울 푹푹 떨어지는 소리만 들으면 오장육보가 바싹바싹 오구라드는 것 같다.  
 (중략)  
 복실 : 어머니도 너머 역정 내지 마세요. 한숨에 땅이 푹 꺼질 것 같수. (뒤란으로 나간다. ㉡ 먼 마을 개 짖는 소리 '멍~' 하고 뒷산에 울려온다. 파도 소리 점점 커진다.)  
 처 : (불길한 예감에 놀라 부엌에서 뛰어나오며 눈을 헝뜨고) 그날이 꼭 오늘이야. 그날이 오늘이야.  
 복실 : (뒤란에서 쫓아 나와 매달리며) 어머니 어머니 진정하세요. 석이가 불쌍치 않으세요. 이 비 쏟는 춘 밤에 조개 잡아가지고 오다가도 어머니 이러시는 것만 보면 애가 타서 하는데.  
 처 : (머리에 손을 얹고 잠시 무언)  
 복실 : 죽은 제가 쓸 테니 제발 들어가 주무세요. 네?  
 석이 : (㉢ 쪽지게에 조개를 잡아 지고 개펄투성이로 들어온다.) 어머니, 날이 어떻게든 쌀쌀한지 개펄 속에서 정쟁이가 그대로 뻗뻗이 굳겠어.  
 복실 : 아이 가엾어라. 춥겠구나.  
 석이 :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것이 아무래도 또 한바탕 쏟아질라나 봐. 여드레 밤낮을 쏟았으면 고만이 지, 지긋지긋이도. (부엌 앞에다 지게를 내려놓으며) 어머니 어젯밤은 좀 주무셨수?  
 복실 : 밤새 개[浦]\*를 울고 헤매셨단다. 처 : (먼- 일을 쫓는 듯이) 큰아이 죽든 날도 꼭 가을 꼭두새벽

이맘때야. 그날도 청승맞게 황둥개가 짖었지. 아  
 마.  
 석이 : (금시 풀이 죽으며) 여드레 밤을 꼬박 울고 새겼  
 으면 고만이지 어젯밤도 개를 해매셨다니 하루이  
 틀 아니고 참말이지 어찌 살겠소?  
 (가)  
 복실 : 큰오빠 죽은 뒤로는 바람만 불어도 갈매기만 안  
 울어도 작은 오빠 죽었다고 물가를 외치고 단기  
 시니.  
 처 : (석이와 복실의 말은 들은 척도 않고) 느 아버지는  
 토담 앞에서 그물을 뜨고 복실이는 지금 앉은 바  
 로 그 자리에서 조개를 까고 나는 부엌에서 복조  
 가 먹고 갈 시래기죽을 쑤고 있을 때야.  
 석이 : 집이라고 터덜거리고 들어와야 웃는 낮이 하나도  
 없으니 당최 맥이 풀려. 처 : 시커먼 그 무슨 이  
 상한 생각이 번개같이 획 머리를 지나갈래 부엌  
 문을 튀어나왔드니.  
 석이 : (울음 섞인 말로 모의 말을 막고) 그때 수상경찰  
 서 순사하고 쇠뿌리 사공이 짚물에 꿈꿨을 큰  
 성 바지 저고리를 들고 들은 얘기는 안 해도 다  
 - 알아요.  
 복실 : 어머니 이것이 어디 우리만 당하는 일이에요. 지난  
 일을 끄집어내서 우시고 우시고 하시면 산허구리\*에  
 고기잡어 먹고 살 사람 있겠어요?  
 석이 : 남이라 살라구. 처 : 하나님도 설마 복조마저야 안  
 잡아가지겠지. 그러나 같이 나갔던 배들 한 척 두 척  
 벌써 다- 들었는데 아직도 열두 척만 꿩 귀 먹은  
 소식이니 벌써 물귀신 다 됐을거야. 지금쯤은 몸뚱이  
 벌써 죄다 파 먹히고 바지저고리만 어느 바위틈에  
 끼었을 거다.  
 복실 : 어머니 무슨 악바친 소리를 그리 하슈. 빈말이라도  
 부모 말이 등에서 안 떨어진다는데.  
 석이 : 아버지 술 잡술 적마다 큰누나더러 못산다 못산다  
 하시드니 시집간 후 지금껏 고생만 하지 않았어요?  
 정말 작은성이 그렇게 됐다면 그래 좋겠어요?  
 처 : 차라리 죽었다면 잠이나 한잠 식-식 자지.  
 복실 : ㉠ 이번 풍랑은 대단치도 않다는데.  
 처 : 분이아범(큰사위)도 내 딸을 시퍼런 과부를 만들어 놓  
 고 물에서 죽었지. 내가 전생애 죄가 많아 그래. 느  
 아버지 상어 이빨에 윈다리 몽땅 끊어지든 날도.  
 석이 : 글썄 제발. (울면서 발을 구른다.)  
 - 함세덕, 「산허구리」-

\* 개[浦] : 강이나 내에 바닷물이 드나드는 곳. 물가. 바닷가.  
 \* 산허구리 : 산등성이의 잘룩하게 들어간 곳. 여기서는 동네가 위치한 곳.

7. 위 글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을 역전시켜 사건이 전개되고 있군.
- ② 공간 이동에 따른 인물의 행위가 초점화되고 있군.
- ③ 사건 진행에 따라 인물이 처한 상황이 상세화되고 있군.
- ④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군.
- ⑤ 시간적 배경이 구체화되어 사건이 역사적 의미로 연결되고 있  
 군.

8. 위 글을 통해 추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석이'가 어머니에게 반발하는 이유는 불길한 말을 반복하기  
 때문이다.
- ② '복실'은 무능력한 어머니와 아버지를 대신해 집안 경제를 책  
 임지고 있다.
- ③ 아버지가 식구들을 박대하는 이유는 불구가 된 몸을 비관하기  
 때문이다.
- ④ 큰사위와 큰아들의 죽음을 경험한 어머니는 자신의 장래를 걱  
 정하고 있다.
- ⑤ '석이'는 큰형의 죽음이 확인된 날의 상황을 근거로 '복조'의  
 죽음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9. [가]에서 '처' 대사의 특징과 효과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  
 한 것은?

- ① 상상한 것을 경험한 사실처럼 말해 앞으로 벌어질 사건의 정  
 보를 제공하고 있다.
- ② 다른 인물의 말에 엉뚱한 반응을 보여줌으로써 긴장된 분위기를  
 이완시키고 있다.
- ③ 연결되는 일을 시간차를 두고 말하여 상대방의 궁금증을 의도  
 적으로 유발하고 있다.
- ④ 다른 인물과 소통하지 않고 혼자말하듯이 말하여 자신의 의식  
 상태를 드러내고 있다.
- ⑤ 다른 인물의 말을 연속적으로 왜곡함으로써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를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10. ㉠ ~ ㉣에 대해 연출자가 할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연기자는 궁핍한 삶으로 인한 고뇌와 좌절이 표정에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연기해야 합니다.
- ② ㉡ : 연기자는 자식의 소식을 궁금해 하는 어머니의 조바심을  
 잘 드러내야 합니다.
- ③ ㉢ : 음향 담당자는 '개 짖는 소리'가 '처'가 느끼는 예감과 관  
 련되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④ ㉣ : 소품 담당자는 개펄에서 고생한 모습이 의상을 통해 관객  
 에게 역력히 보이도록 준비해 주세요.
- ⑤ ㉤ : 연기자는 상대방의 말을 부정하는 의도가 대사를 통해 드  
 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승상이 배를 타고 황하로 들어가니, 백이해 승상 오심을 듣고 마중 나와 맞아 영중(營中)에 들어가 국가사(國家事) 가이 없음을 아뢰거늘, 승상이 탄식 왈,

“내 이리 옴은 폐제를 회복코져 하여 남방 각진을 돌아 운남(雲南)으로 왔으니, 그대도 아무날 배를 출발하여 운남 절도사 신사덕과 합세하라.”

(A) 하시니, 백이해 허락하거늘, 승상 왈,  
“이리이리하라.”

하고 떠나려 하니, 백이해 왈,  
“승상이 이제 어디로 행하시나이까.”  
답 왈,

“나는 황토에 들어가 폐제를 뵈옵고 날을 기다려 떠나려 하노라.”

백이해 왈,  
“육로(陸路)로 가시면 길이 험악하오니, 수로(水路)로 가시게 하옵소서.”

하고, 사공에 분부하여 빠른 배를 선창에 대라 하고 승상을 모시고 선창에 나아가니 동남풍이 일어나거늘, 백이해 왈,

“승상의 충성을 하늘이 알으셔 때 없는 동남풍이 부오니, 폐제를 수이 뵈오리다.”

하직하고 돌아와 각처 배들을 단단히 경계하더라. 승상이 배를 타고 삼일 만에 황토에 득달하니, 사공이 여쭙오되,

“수로(水路) 사천 리를 삼 일만에 득달하오니 가장 괴이하여 이다.”

승상이 속으로 크게 기뻐 사공을 보내고 폐제의 유배된 곳에 들어가니, 가시로 성을 쌓고 있는지라. 승상이 관을 벗고 사립문 밖에 었디어 통곡하니, 폐제 들으시고 크게 놀라 신하를 보내어 물으시니 아뢰되,

“전(前) 승상 장경이 문 밖에 대령하였나이다.”  
폐제 내달아 승상을 붙들고 통곡하시니, 승상이 위로 왈,  
“폐하 이렇듯 하심은 다 신의 죄오니, 무슨 면목으로 뵈오리까마는 죄를 무릅쓰고 명령을 기다리오니, 폐하는 옥루(玉淚)를 거두소서.”

폐제 울음을 그치시고 승상의 손을 잡고 위로 왈,  
(B) “내 덕이 밝지 못하여 그대를 귀양 보내고 이 옥을 당하니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리오. 경은 안심하라.”

하시고, 처소에 들어가 건성(建成)이 모반하던 말씀을 이르며 물은즉, 승상이 도망한다 하대 다행하여 혹 찾아올까 고대하던 말씀을 차례로 하시니, 승상 또한 악명(惡名)을 씻지 못하고 천명을 기다리더니, 한 꿈을 얻어 도주하여 청운산 승당(僧堂)에 가 애첩 초운을 만나던 말과 남방 각진을 두루 돌아 약속한 말씀을 차례로 아뢰니라.

(중략)

승상이 폐제를 모시고 남성문에 올라 청룡기(靑龍旗)를 두르니, 좌선봉 양철이 십만 정병을 거느리고 동성문을 쳐 백이해를 맞아들이고 백호기(白虎旗)를 두르니 우선봉 신담이 팔만 정병을 거느려 서성문을 쳐 유지엄을 맞아들이니, 삼대진(三大陣)이 합세하여 궁성을 둘러싸고 치니 대장 추통이 군병 대세를 당치 못하여 죽도록 막더니, 선봉장 양철이 말을 몰아 추통과 접전하여 이십여 합에 승부를 결단치 못하더니, 총독장 마맹덕이 말

(가) 위에서 보다가 크게 소리하고 달려들어 일합에 추통의 머리를 베어 선봉 깃대에 달고 좌충우돌하니, 건성이 추통의 죽음을 보고 크게 놀라 신하들을 거느리고 북문으로 달아나거늘, 승상이 북을 울리며 기를 돌려 좌우 군

병을 재촉하여 급히 따르니, 건성이 후군(後軍) 급함을 보고 유성장 한원과 도총독 배웅으로 뒤를 막으라 하고 달더니, 선봉장 양철이 군사를 재촉하여 쫓아가며 후군을 치니 한원 등이 선봉을 막거늘, 양철이 달려들어 한원을 베고 우선봉 신담은 배웅을 베고 급히 쳐들어가니, 건성군이 힘이 다하매, 중서랑 추원에게 명하여 옥새를 봉하여 드리거늘, 양철이 마상에서 칼 끝에 받아 들고 크게 외쳐 왈,

“반적 건성은 하늘로 오르며 땅으로 들다. 어디로 가리오.”  
하며 칼을 빼어 들고 달려들거늘, 승상이 급히 말려 왈,  
“건성의 죄는 죽음직하나 선제(先帝)의 혈육이라. 양원수는 진정하라.”

하시니, 양철이 건성의 용포(龍袍)와 금관(金冠)을 벗기고 따르던 신하들을 다 결박하여 앞에 세우고 폐제를 모시고 이날 환궁하사 승전고를 울리며 황극전(皇極殿)에 나와 앉으니, 제장 군졸이 만세를 부르며 역모에 가담한 신하들을 차례로 항복받아 법에 따라 사형에 처하고, 비군을 잡아내어 능지처참하고 건성의 황비(皇妃)를 백파강 가에 내치니, 건성이 남루한 옷차림으로 천수산에 들어가 주려 죽으니라. 승상이 폐제를 받들어 종사에 나아가, 다시 천자사직(天子社稷)을 받드신 후에 천하가 태평하더라.

이적에 폐제 섬기던 신하들이 산중에 숨었더니, 기별을 듣고 모두 들어와 천자를 섬기는지라.

승상이 남북방 군사를 위로하여 보낸 후에 천자께서 큰 연회를 벌여 잔치하실새, 상이 친히 잔을 들어 승상께 전하시고 명령 왈,

(C) “짐이 경등(卿等)으로 더불어 오늘날 즐기는 다 승상의 덕이라. 어찌 그 은혜를 모르리오.”

하시고, 이날 장경을 연왕으로 봉하시고 곧 유지를 내리우시니, 승상이 사은(謝恩)하시고 돌아오니 연국(燕國) 신하들이 잇달아 위의(威儀)를 차려 왔는지라.

- 작자 미상, 「장경전」 -

11. 위 글의 내용을 한자성어를 이용하여 표현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장경이 황토로 찾아간 것은 유배된 폐제에게 면종복배(面從腹背)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 ② 장경이 폐제를 위해 군사를 모은 것은 신하로서 견마지로(犬馬之勞)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어.
- ③ 폐제와 장경이 건성에게 대적하여 군사를 일으킨 것은 권토중래(捲土重來)한 것으로 볼 수 있어.
- ④ 폐제가 장경을 붙들고 통곡한 것은 폐제의 절치부심(切齒腐心)했던 마음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어.
- ⑤ 폐제가 복위되고 건성이 쫓겨나는 것이 장경의 입장에서는 사필귀정(事必歸正)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12. [A] ~ [C]를 관련지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A]의 계획은 [B]의 대화 내용에 포함된다.
- ② [B]의 ‘폐제’는 [A]의 대화를 이미 알고 있다.
- ③ [B]의 인물 관계는 [C]에서 극적으로 역전된다.
- ④ [C]는 [A]를 추진할 수 있는 직접적 계기가 된다.
- ⑤ [B]의 대화에 담긴 거짓은 [C]에서 반어적으로 폭로된다.

13. [가]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건의 빠른 진행을 통해 장면의 긴박감을 전달하고 있어.
- ② 전기적(傳奇的) 요소를 통해 중심인물을 부각시키고 있어.
- ③ 인물의 성격 변화 과정을 제시하여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어.
- ④ 공간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독자에게 선명한 인상을 주고 있어.
- ⑤ 다양한 일화를 유기적으로 조직하여 사건의 인과관계를 드러내고 있어.

14. 위 글과 <보기>의 공통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창작 노트 >

「 유충렬전 」의 주요 장면

- 유심과 부인 장씨는 치성을 드리고 아들 충렬을 얻는다.
- 정한담, 최일귀 등이 유심을 모함하여 귀양 보내고 그의 가족마저 살해하려 하나, 천우신조로 충렬은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다.
- 충렬의 장인 강희주는 정한담을 규탄하다가 귀양을 가게 되고, 충렬은 백룡사의 노승을 만나 무술과 병법을 배운다.
- 남적과 북적이 명나라에 쳐들어오자, 정한담은 합세하여 천자를 공격한다.
- 충렬은 홀로 반란군을 제압하여 항실 가족을 구출하고 정한담을 사로잡는다. 그리고 잡혀간 아버지 유심과 장인 강희주를 구한다.
- 충렬은 이별하였던 부모와 아내를 다시 만나 함께 부귀영화를 누린다.

- ① 우리나라가 아닌 중국을 배경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 ② 어려움에 처한 황제를 돕는 이상적인 충신의 역할이 드러나 있다.
- ③ 대립적 인물군의 갈등과 해소 과정을 통해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④ 일반 백성들의 삶과는 거리가 있는 상층 지배층의 세계를 배경으로 삼고 있다.
- ⑤ 주인공의 영웅적 활약을 통해 평화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를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1~6] 정지용 「춘설(春雪)」, 황지우 「출가하는 새」,  
작자 미상 「전원사시가(田園四時歌)」

- |      |      |      |
|------|------|------|
| 1. ② | 2. ② | 3. ③ |
| 4. ④ | 5. ④ | 6. ③ |

[7~10] 함세덕, 「산허구리」

- |      |      |      |
|------|------|------|
| 1. ③ | 2. ③ | 3. ④ |
| 4. ① |      |      |

[11~14] 작자 미상, 「장경전」

- |      |      |      |
|------|------|------|
| 1. ① | 2. ① | 3. ① |
| 4. ⑤ |      |      |